



## 코닥, 호주에 차세대 소노라 XP 무현상 판재 출시 하이델베르크 통해 공급

코닥과 하이델베르크는 호주에서 인쇄사업자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판재 제작을 할 수 있게 한 차세대 소노라 XP 무현상 판재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코닥이 4월에 첫 선을 보인 후 5월 30일부터 하이델베르크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자료 제공 | 한국코닥

코닥의 새로운 판재는 차세대 코닥 판재 제작 기술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화학 현상 과정을 없애고 판재 제작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고품질 인쇄가 가능하다.

호주 코닥의 마케팅 매니저인 John Hatzimanolis는 “현재 출시된 어떤 판재보다도 더 세밀한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공급하며, 화학 현상 과정까지 없어서 인쇄사들이 여러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 출시된 무현상 판재의 가장 좋은 점은 씨멀 다이렉트 판재의 좋은 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빠르고 정확한 이미지를 구현한다”라며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돼 인쇄사들은 우수한 인쇄 품질을 얻을 수 있다. 수익성과 친환경성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둘을 모두 얻을 수 있어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이델베르크의 소모품 프로젝트 매니저인 Kevin Birch는 “차세대 무현상 소노라 XP 판재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 높은 생산성, 향상된 인쇄 품질, 비용절감에 대한 무수히 많은 피드백을 전달받고 있다”고 말했다.

Victoria's Signs 출판의 프리프레스 매니저인 Greg Howse는 “줄어드는 공정으로 인해 훨씬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해졌다. 차세대 소노라 XP

판재를 통해 노출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워크플로에서 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며, “우리는 출력물을 2배로 만들었다. 소노라 XP 무현상 판재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걱정을 떨칠 수 있었고, 더 이상 현상 과정과 관련된 유지보수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소노라 XP 무현상 판재로 인해서 훨씬 좋은 작업환경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출판사의 Birch는 “차세대 소노라 XP 판재는 고객들이 무현상 플랫폼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기반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됐다. 소노라 XP 무현상 판재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현상 과정을 없앴으며 비용을 절감시켜준다”라며 “화학약품의 구매 및 처리가 필요없게 됐고 물 사용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비용 절감과 환경 친화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Sonora XP 무현상 판재의 품질 측면에서 본다면 화학 현상과정을 없애고 뛰어난 해상도와 세밀한 이미지를 인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노라 XP 무현상 판재는 모든 프레스 타입에 적합한 다재다능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